



이 학 영 | 우리협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가물치 : 한국 가물치, 일본 열도를 흔들다.

학 명 : *Ghana argus*

지역 방언 : 뱀대가리, 감아치, 카부치, 가마취, 감시.

칠성갑우치 등

분 류 : 농어목 가물치과

자 생 수역 : 우리나라 거의 전 하천 및 중국과 일본에도 서식

주 서식장소 : 물 흐름이 약한 호수, 연못, 하천습지대 등

번 식 기 : 5-7월

크 기 : 100센티 내외

갑옷을 입고 용맹을 떨치는 대장군의 위용을 한껏 갖춘 물고기라면 단연 가물치를 따라갈 어종이 민물 수계에 또 어디 있으랴. 씩씩하다 못해 무섭고 징그럽기까지 보이는 이 물고기는 길이 1미터가 넘는 것도 있는 대형어종이다.

몸은 암갈색 바탕에 흑갈색 무늬가 모자이크 형태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으나 어린 치어는 반점이 없이 황갈색을 띠고 있다. 주로 저수지, 늪 등 물이 고여 있고 수심이 얕으며 물풀이 무성한 곳에 서식한다. 하천의 상류나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살지 않고 있다.

상새기관이라고 하는 호흡보조기관이 있어 오염되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잘 적응하여 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몸에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여 기온 7°C에 물 밖에

나두었더니 일주일이나 피부와 공기 호흡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고 수온의 급격한 변화에도 잘 견디는 강한 어종이다. 수온이 높을 때는 물속의 산소량이 적어 아가미 대신 주로 공기 호흡을 한다. 겨울에는 진흙 바닥에 묻혀 동면상태로 월동을 하고 봄이 되어 수온이 올라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육식성 어종으로 물고기, 개구리, 수서곤충 등을 먹고 산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큰 가물치가 작은 가물치를 잡아먹기도 한다. 낚시어종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주로 개구리나 미꾸라지를 미끼로 써서 잡는다.

5-7월 산란기를 맞으면 수컷과 암컷이 함께 물위에 뜨는 직경 80-100센티 정도의 물풀 덩이를 만들고 여기에 암컷이 배를 뒤집어 알을 낳는다. 금슬이 좋은 가물치 부부는 덩이 주위에서 알을 같이 지켜준다. 주위에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되면 덩이를 밀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갓 부화한 어린 가물치는 담황색을 띠며 일견 올챙이처럼 보이는 매우 귀여운 모습을 지녔다. 작은 가물치는 관상어로서도 손색이 없다.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른 이 물고기는 좋은 양식어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물치는 일본에는 없던 어종이었으나 1923년 한국에서 나라현으로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일본의 거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름도 우리말을 옮긴 가무루치를 표준어로 사

용하고 있다. 가물치가 일본 담수 수계의 고유종을 무차별 포식하자 이를 퇴치하자는 구호가 여러 지방 하천마다 등장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 2009년에 2회 단체 일본 하천 탐방을 갔는데, 하천안내실에 위해외래종 1호로 가물치를 전시한 것

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민족의 피눈물을 우리의 가물치가 일본에서 대신 풀어주고 있구나’라고 했던 어느 동행인의 말씀이 오히려 가슴이 아린 것을 왜 일까?



〈그림 1〉가물치

김포 창후리에서 만난 가물치. 가끔 흐리거나 비오는 날 하천변에 기어나와 어슬렁거리는 가물치를 볼 수 있다.



〈그림 2〉노량진 수산시장의 가물치

중국산 가물치가 수입되고 있기에 국내산이라고 출처를 밝혀 판매하고 있다.



〈그림 3〉서식지 오산천과 가물치

오산천 생태조사에서 잡은 가물치군을 들여 보이는 필자. 뒤에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보약이지만 이 녀석을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림 4〉일본 가물치 안내문

일본 순수 토종어류를 위해하는 외래종으로 일본 열도의 수생태계가 이 친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일본다운 엄살을 피우는 현장을 일본 하천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어서 즐겁다고나 할까?